올해 봉축엔 탁 트인 조계사 만날까

2월 21일 기자간담회서 사업계획 발표

일주문 가렸던 '동양금박' 매입
최대 난제 해결로 가시적 성과

건물 철거 후 기와담 조성 추진
목불좌상 국가문화재 지정 예고
자비나눔·온오프 신행 확대 기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추진해 온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총본산 성역화 사업' 이 올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최대 난제로 손꼽혔던 일주문 앞 동양금박 매입이 지난해 말 성사된데 따른 것이다.

조계사는 2월 21일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총본산 성역화사업의 그간 성과가 가시화되는 해로 조계사 안팎의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주지 지현 스님에 따르면 조계사는 2015년 '상아불교사' 2016년 '을유문화사' 2020년 '상아빌딩' 과 '은성식당' 을 매입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경 '동양금박빌딩'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 동양금박빌딩은 조계사 일주문을 정면 기준 반 이상 가리고 있는 건물이어서 총본산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할 건물로 손꼽혔다. 때문에 전임 주지 스님들도 수차례 매입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동양금박빌딩 매입까지 40년이 걸렸다고 정도로 조계사의 오랜 숙원이자, 성역화 과제의 최대 난제였다"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축적돼 온 총본산 사업의 성과들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사는 동양금박 빌딩의 명도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철거해 일주문을 가리고 있던 구조물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부처님오신날, 늦어도 백중 이전까지 명도를 완료하고 철거를 단행, 총본산 성역화를 가시화하는 청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현 스님은 "건물 철거 이후에는 별도의 구조물 건립이나 증축 없이 탁트인 일주문 전경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와담 형태로 인근과 이어지는 모습으로 조성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계사가 훨씬 안정돼 보이고 아늑해 보일 것이라는 기대로 문화재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조계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이하 목불좌상)의 문화재 지정도 예정돼 조계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조계사 목불좌상은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과 미술사연구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조선전기 왕실지원으로 조성된 도갑사 불상군 중 하나란 학설이 제기된 후, X-ray 촬영 등 조사연구를 거쳐 국가문화재 보물승격이 추진됐다. 그 결과 올 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문화재지정예고 공시기간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행보도 더욱 확대된다. 동시에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 발맞춘 온오프 포교신행 프로그램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통한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조계사는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을 수탁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지원, 나눔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행복나눔가피봉사단을 중심으로 한 집수리 봉사, 난방용품 지원 등은 예산을 확대하는 등 이웃의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온오프 포교신행 프로그램은 그간 다양한 시도들을 정착하는 단계에 접어들 예정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유튜브 법회 생중계와 SNS 소식 안내, 온라인 불교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2021년부터 기획한 '총총조계사' '우리절 노래꽃이 피었습니다' '법문 카드뉴스' 등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삼년째 이어진 코로나 펜데믹 상황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조계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보 속에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 포교신행의 새 바람을 이끄는 한편,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더디지만 꾸준하게 성역화 사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가연수, 인문강좌 강화…비대면·대면 병행

조계종 교육원, 2022년도 연수교육 계획 발표

승가결사체 인증서 수여식
올해 31개 단체 확대 활동

조계종에서 시행하는 승가연수교육이 시대 변화에 맞게 인문·사회형 강좌가 강화되며, 비대면·대면 연수가 병행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3월 2일 법계과정의 '대덕·혜덕 법계과정' 을 시작으로 올해 연수교육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2022년도 연수교육은 교육원에 개설·진행하는 '강좌형·순례형 연수' 와 교육원의 인증을 받아 진행하는 '인증교육 연수',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으로 구성된다. '자원봉사활동'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강좌형 연수는 법계과정(6개), 사찰경영과정(3개), 선교율과정(4개)을 기본으로 하며, 시대에 맞는 인문사회과정 13개 강좌가 개설됐다. 주요 인문사회과정 강좌로는 △인도신화와 불교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라캉 정신분석이론 △소통의 화법 △조선시대 불교회화 △통합종단 60년사 △영상 콘텐츠 글쓰기 등이다. 한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국내·외 순례과정도 국내 2곳(제주불교 탐방, 내포 문화권 불교유적 답사), 하반기 해외 2곳(중국불교의 정수 '돈황 순례', 일본불교의 정수 '시코쿠 순례')을 개설됐다. 다만, 방역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연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증교육 연수' 는 전국에서 48개 과정으로 진행한다. △간화선 △의례 △명상 △사찰음식 △불교영어 △설법스피치 △차블렌딩 △템플스테이 △유물관리 △불교호스피스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연수교육 일환으로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인증교육 연수' 는 연 1회에 한해 연수점수 30점을 인정하고 있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은 올해에는 31개로 확대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2년도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인증서 수여식' 을 개최하고 인증서와 지원금을 전달했다. 올해 승가결사체에 대한 교육원의 지원 총액은 1억 2500만원이며, 단체별 보조금 지원은 31개 단체의 활동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회의 등으로 활동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수점수 50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중덕·정덕 법계를 받고 1년에서 5년차에 해당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덕·정덕 법계과정1' 은 올해도 교육비를 무료로 진행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무엇보다 유동적인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연수와 대면 연수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온라인 연수교육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언제든지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연수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도 연수교육 강좌의 내용 및 일정을 안내하고 신청방법을 담은 〈2022년도 연수교육〉 안내책자를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교육원 연수교육 홈페이지(monkedu.buddhism.or.kr)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은해사 신임주지 덕조 스님 임명

원행 스님, 2월 23일
"화합교구 운영" 당부


은해사 주지 임명장을 받은 덕조 스님(오른쪽)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신임주지 덕조 스님이 "화합으로 교구 발전을 일구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23일 덕조 스님에게 은해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덕조 스님은 2월 17일 은해사 차기주지 후보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해 차기주지로 선출됐다.

원행 스님은 "종단과 교구발전을 위해 큰 원력을 내줘서 고맙다"며 "산내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교구본사 대중 모두가 잘 어울려 화합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덕조 스님은 "총무원 사회부장 소임을 맡았던 2년 간 원장스님으로부터 배운 바를 교구운영에 잘 적용하겠다"며 "종단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은해사 신임주지 덕조 스님은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87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승가대학와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했으며 2013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하양포교당·영천 진불암·경산 불굴사 주지,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포교원 포교국장과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주 약천사 주지를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승가교육기구 신규 구성 잇달아

신임 교육위원장 금강 스님
염불교육위원장 화암 스님
교육아사리 신규·재위촉도

종단 교육 기본계획을 연구·수립하는 교육위원회의 신임위원장으로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선출됐다. 이밖에도 염불교육지도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으며, 교육아사리 신규·재위촉도 이뤄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4기 교육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제14기 교육위원회는 금강 스님, 덕문 스님, 등현 스님, 정덕 스님, 인해 스님, 연각 스님, 진각 스님, 운산 스님, 김종욱 동국대 교수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으로는 금강 스님이 호선됐다.

교육위원회는 종단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연구·수립하는 교육원 산하의 위원회로 교육에 관한 종법·종령의 제정 또는 개폐안 등을 기획한다. 교육위원장은 교육원 최고의결기구인 교육원회의에 참석해 교육원의 각종 현안들을 심의 의결한다.

제3기 염불교육지도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2월 22일에는 위촉식을 열고 5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위촉된 제3기 염불교육지도위원은 화암 스님(어산종장), 인묵 스님(어산어장), 법안 스님(어산종장), 정오 스님(어산종장), 현준 스님(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교수)으로, 임기는 4년이다. 위원장에는 화암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승가교육과 연구를 담당할 교육아사리로 16명이 신규·재위촉 됐다. 신규 위촉된 교육아사리는 7명으로 '대승불교' 분야에 승범·동명·석도(니) 스님, '선불교' 분야에 휴담 스님, '응용불교' 분야에 지월·자운·홍경(니) 스님이 각각 위촉됐다.

3년 임기 만료된 교육아사리에 대한 심사를 통해 9명이 위촉됐다. 재위촉된 교육아사리는 '대승불교' 분야에 도업(니) 스님, '선불교' 분야에 지은(니) 스님, '계율' 분야에 보운·법장·유정(니) 스님, '응용불교' 분야에는 범우(니)·태경(니) 스님, '불교사' 분야에 문광·정완(니) 스님이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 아사리는 승가교육자이자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연구하는 수행자로 종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위촉되신 교육아사리 스님들은 사명감을 갖고 한국불교의 중추적 역할들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촉된 교육아사리 스님들은 승가교육 관련 교육 및 연구활동을 담당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활동할 수 있다. 교육아사리의 임기는 3년이다.

신성민 기자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